

# '전주국제영화제' 해외 뜨거운 관심 입증

국제경쟁 부문 공모 역대 최다 출품... 81개국 747편 접수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 공모에 81개국 747편이 출품, 역대 최다 출품 수를 기록했다. 15일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국제경쟁 부문 공모에는 81개국 747편의 영화가 접수됐다. 604편의 작품이 출품된 전년 대비 143편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역대 최다 출품 수를 기록한 것으로, 영화제에 대한 해외 영화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대륙별 출품작 수가 높은 순위로는 아시아가 403편으로 가장 우세하며, 다음으로 유럽 277편, 남아메리카 110편, 북아메리카 79편, 아프

리카 7편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출품 순위로는 이란이 110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 수를 기록함과 동시에, 이란 영화의 약진을 보였다. 여기에, 중국 85편, 인도 54편, 프랑스 46편, 미국이 44편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출품작 장르의 경우 극영화가 435편, 다큐멘터리 233편, 실험영화 55편, 애니메이션 9편, 그 외 기타 장르 15편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극영화 78편, 다큐멘터리 45편, 실험영화 25편, 애니메이션 3편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실험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증가율이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며,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영

화의 장이 될 것을 예고했다. 전진수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는 "귀한 작품을 출품한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역대 최다 출품작 수를 기록한 것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극장에서 작품을 소개할 기회가 줄어든 젊은 영화인들이 영화제를 통해 평가받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젊은 영화인들에게 전주국제영화제가 어떤 의미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수치"라며 "공정하고 치열한 심사를 통해 훌륭한 작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모집

1년간 3~5회 공연 관람 의견서 제출... 22~25일 이메일 접수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2024년을 함께할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은 1년간 3~5회의 공연을 관람하고 간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악원의 향후 공연 및 운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자로, 만 15세 이상 전통예술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hsjuc7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모니터링단 활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공되는 의견들을 통해 국악공연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공연 예약우선권과 함께 의견서 제출 시 소정의 상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www.namwon.gugak.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063-620-23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노상놀이야 통합퍼레이드 모습

#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대상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이하 노상놀이야)' 공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상놀이야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리극 및 퍼레이드 등 지역 특화 문화 예술 기반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의 문화관광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민 및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공연으로, 주말 시간대 시군별 14회 상설공연과 통합퍼레이드 1회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

술 등을 지역별 관광형태와 계절별 상황을 반영해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는 1차 제출서류 검토, 2차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PT심사로 진행하며, 선정발표는 2월 16일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5개 시군과 수행단체에는 각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노상놀이야 사업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며 "도내 시군 및 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에 활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재단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5)에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채만식문학관, 기획전시 '여자도 문인이되다' 개최

채만식문학관(이하 문학관)은 문학관 2층 전시실에서 기획전시 '여자도 문인이되다'를 오는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근대기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영향을 끼친 여성 문인과 문화를 조명하고자 문학 작품과 신문, 사진 등 관련 자료 2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시대에 맞선 여성>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의 인권과 인식이 개선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2부 <근대 여성 문인 6인>에서는 여성 해방과 계몽을 위해 싸운 대표적인 여성 문인 강경애, 김명순, 김일업, 나혜석, 박화성, 백신애의 활동과 작품을 소개한다. 3부 <체험공간>에서는 현대어로 쉽게 풀어쓴 근대 여성 문인의 작품을 직접 읽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 내용을 되새길 수 있게 한다. 문학관 관계자는 "근대기 문단에서 활동한 여성작가들을 통해 근대기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영향을 끼친 문학의 힘을 느끼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만식문학관은 군산의 문화사 연구와 문단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문화자료 수집, 작품과 서지 자료를 활용한 전시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김관복 기자



전북대학교 역사관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대역사 특별전 '옛 전라선 철길, 추억 그리고 전대인'을 오는 2월 23일까지 박물관 중앙홀에서 진행한다.

# 전북대역사관, 전대역사 특별전

2월 23일까지 '옛 전라선 철길, 추억 그리고 전대인' 개최

전북대학교 역사관(관장 김은희)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대역사 특별전 '옛 전라선 철길, 추억 그리고 전대인'을 오는 2월 23일까지 박물관 중앙홀에서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이라역(현 익산역)에서 출발해 삼례를 지나 동산역, 북진구역, 덕진역(현 덕진광장), 전주역(현 전주시청)을 지나가는 옛 전라선 기차는 전주 시내를 가로지르며 전주사람들의 삶과 추억을 함께 한다. 전라선 기차는 전대인들의 발이 되어주기도 했고, 전북대학교 정문(현 서문)을 지나가는 철길은 등하곶길에 마주하는 익숙한 공간이자 졸업앨범 속 단골 촬영 장소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전주시를 관통하던

옛 전라선 철길을 따라 전주사람들의 일상 모습과 대하 초창기 전대인의 흔적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자료 및 졸업앨범 등 40여 점이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지금은 사라진 옛 덕진역과 전대인들이 통학할 때 이용했던 증기기관차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대하 구성원뿐 아니라 전북대에 대한 지역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희 관장은 "역사관에서는 지속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할 예정"이라며 "전북대학교를 매개로 하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확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박물관 학예실(063-270-395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